

낙수가



[해제]

<낙수가>는 전적(典籍) 형태의 작품으로 주로 효행(孝行)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행(五行)의 원리로서 효를 강조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가사작품이다. 주제별 분류로는 교훈가사로 봐야 하겠지만, 오행의 상생원리 또한 비중이 높아 잡가(雜歌)로 분류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작자와 필사자를 알지 못하며, 창작시기와 필사시기 또한 알지 못한다. 줄글의 연속된 형태로 필사하고 있으나, 필체가 매우 난삽하여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현대어로 옮기는데 매우 어려우며, 이 부분은 후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표지에는 ‘낙수가’라 쓰여 있고, 뒷표지는 아무런 표식이 없다. 모두 32면에 걸쳐 필사된 장편가사이다. ‘낙수’는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낙수(落穗)’의 의미가 아닌가 싶다. 落穗는 ‘추수 후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또는 ‘어떤 일의 뒷이야기를 비유한 말’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진다. <낙수가>는 효행과 관련하여 고사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효행과 관련한 고금(古今)의 소재를 활용하여 이를 교훈적으로 알리고자 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품의 전개 과정을 보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에서 효행으로 이름난 민자건, 맹종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내용의 서로 섞이는가 하면 민자건의 경우는 뒷부분에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사자가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화홍련이라는 고전소설의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역시 매끄럽지 못한 전개가 흠으로 남는다. 앞서 소개한 대로 오행(五行)의 원리를 통한 효행의 강조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실천적 덕목을 중요시 여기기 위해 등장한 문학적 장치로 보인다.

[원문]

낙수가

은갈솃차 요늬공은 왈프로어날 죽시도 나와서
 계모 구박혀여 문위출송 허시거날
 민조건니 복지혀여 지성으로 비논말이
 계모가 스가시며 어린동심 엇지혀며
 부친님 감지공을 늬능히 허오닛가
 순스의 효칭인들 십분이니 되오닛가
 지성으로 이걸허외 부친을 말유혀여
 쏘친계모 익홀허되 어마님 가시면
 송스또한 죽스니다 그부친이 회심허
 병만무니 둘은거 머구만 못허도다
 남의조식 되엇싸가 남조는 효조되고
 여조는 효여되지 효조효녀 못될진정
 부모의 일심전의 힘뒤로 섬기다가
 죽은후의 헛이프니 불녀심전 일빅쥬라
 심전의 축기섬겨 부모공덕 갑파스니
 옛날의 미증이는 어려서 모친일코

계모을 섬길적이 효성진정 축한마음
지성으로 섬기다가 그모친이 병이드니
턱악이 무효하고 구미도 변한지라
녹용인삼 좋은물건 싹씨가 전혀업고
화타와 편작이도 드칠슈가 업느니라
씩맛춤 엄동이라 만손의 병이들어
푸른빛 전혀업고 만손의 덤핀눈이
용납지 못한중이 그모친이 청한말삼
죽순나물 청하거널 땡종의 효성보소
흔연이 디답하고 물너나와 살펴보니
황강을 가자하니 길이장차 머러잇고
위슈로 가라하니 어렵이 첩첩하고
기욱으로 가라하니 녹죽은 의의로다
한곳을 다다른 불척흔들 기라울 안이할가
그날뫼땀 더욱조심 이전보다 비뫼조심
그으말 인변들 변허리요
그계모 그날뫼땀 형샘기도 허온후이
친자로 심각하고 천금갓치 스랑허면
초모위디 효로다
몹슬므치 마옴돌여 어진스람 되기허고
이복형제 분별업시 일심등분 업시말니
예셔인뫼 이즈고로 잇는효조
아무리 만타한들 지국한 효성으로
스람을 곤쳐니이 계모뫼실 마을말고
진심갈역 허여셔라
공부주의 데즈중의 총춘허여 하신말습
효제라 민조건이 오날싸지 빗첫구
노리자손 효성허대 평심을 허로갓치
멀이가지 안이허고 가는고지 성문이라
느히칠십이 되여시디
부모전의 늑근모양 흥허느 별식할싸
으심미 총총허고 어린모양 뇌느락고
바중웃실 이적셔른 덤편난디
모친병이 식각하고 죽순을 엇자하니
혈슈가 전혀업다 울밋히 둔흔디를
후렷쳐 부여잡고 양천통곡 하난마리
비나이다 하나임씩 비나이다 명천님 감동허스
오날날이 지뫼치 한기죽순 소스느셔

우리모친 병환중의 횡녀느 초 효불까지
 성으로 통곡한이 옥황이 감동흐스
 엄동설한 눈속으로 죽순이 소스날제
 춘삼월 호시절의 등칠기 소스논듯
 박낭스중 빅스장의 녀스철퇴 소스논듯
 경각강의 소스죽순
 만경창파 너른물의 올린옥책 소스논듯
 댜흘시고 댜흘시고 댜흘시고
 반가이 가져다가 일시봉양 흐온후의
 골슈의 김히든병 출연이 괴초한이
 효성이 안일진린 이리지 신기할가
 빅사지 횡실중의 효성밧계 쏘잇는가
 경상도 성쥬쌍의 빅좌슈라 흐논사람
 아달은 분딕업고 쌀두을 두어시되
 장화홍년 두쌀이라 별당의 여혀두고
 부부셔로 스랑하여 여공데질 가르칠제
 녀넉한 그제쥬로 성경현전 댜흔경시
 무불통지 하논지라
 계초명의 관슈하고 부모침쇼 드러가셔
 침고덥기 무른후의 소스체깁 여스슈유
 일동일정 조심하넉 지성으로 썸기든이
 지몸의 입고 머리의 쏘흘솟고
 썸이셔 춤을춘이 장하다 이말이여
 어린아히 갖치하고 부모전의 점계하고
 마음이스 편키할가 지성으로 지뇌논마음
 천상의 가논히울 길기노을 씨뇌만
 슈순의 울논가셔 가논이월 밍여두고
 오논빅발 금흐던이
 효성이 지극하며 부모가 오리살고
 흐날쌍 다시이려 썸할손 효성이라
 무어시 부족하여 욕심을 자오넉면
 식상을 바리논이 빅화도 못할빅라
 천정이 안일진딕 님의로 효성발까
 천지가 심판할씨 흐날은 아비되고
 쌍은 어미되여 풍슨생썰 썸물초조
 우순풍댜 흐시잔이 쌍이잇는 초목들이
 봄으로 쏘치피고 여름의 성님하여
 추절단풍 동빅션이 한이 이상한가

이르고로 그스이 여벼금쥬 슈츨어중
 의유인이 취귀한이 오륜이 잇스미라
 부자유친 군신유의 신이 무심하여
 모친이 죽은후의 그아비 제취하여
 후실을 두어더니 그계모 불양하여
 이려타시 지성효을 만평심의 미워하여
 옥돌미물 구하늬여 음식지여 먹인후의
 쥐을벗겨 아히갓치 형용을 만들어서
 장화일신 병든후의 치마밧티 여허두고
 음형으로 자밧뇌야
 빙설갓튼 틀천효여 스라날길 전혀업다
 그아비 몰늬보고 후쳐말을 올키듯고
 죽일걱책 심각한 이리안이 가련한가
 장화가할 일업니 동심홍년 불너다가
 손목잡고 부탁하디 불상타 홍년인야
 가련타 님동심으 우리두리 서로밧고
 일심전을 의지하여 부친님 섬기라고
 진심갈역 의논하여 함께조고 함께잇서
 두리셔로 의지타가 귀신이 무심하고
 주물이 시기하의 몸시다 우리계모
 무슨원슈 잇쳐기로 불상한 우리형데
 아무죄도 업건만논 음형으로 모함하여
 누명으로 죽이논고
 이뇌일신 죽은후의 불양한 계모마음
 너도필경 이을트니 이달을스 님동심으
 부친도 가련하늬 네일을 심각하니
 구천의 도라간들 눈을삼고 도라가라
 아무리 스조한들 양반의 자식되야
 음형누명 버셔날스 부디부디 심각말고
 부친님을 효성하여 이니시원 갑파다고
 두형제 통곡할제 일월도초 무광하다
 통곡하여 이별하고 시문박기 뇌다셔
 어딴로 가시랴오 늬도함계 가스니다
 부부유별 장유유셔 봉우유신 흐조하니
 소귀시 인심이래 부모효도 지성하며
 청천이 늬다히도 분명 음덕잇서
 음덕이 유유하여 유조유손 지지마다
 부귀영화 국하여 고관디작 쫓과갓치

식복이쌀 우논이라 효조충신 횡실중의
 감등하기 시운일은 효성박기 쏘인난가
 쉽게듯고 못할횡실 부모효양 분명하다
 니른고로 발근님군 중신을 구하라며
 효조문을 찬난이라 옛글의 하시기를
 주양의 스양이라
 가면익스 현쳐논 일노두고 일으미라
 모부모곳 안이면는 우리몸 어이누리
 불경의도 중후건이 와옥도의 효횡복이
 인칭으게 웃뜸이라 너부귀을 욕심말고
 쉬운효심 자으뇌여 후복을 구히써라
 여조몸 되거들냥 여공제딜 비와닐제
 닉외가 분명하여 그은국가 김피잇서
 부모음식 갓출씩며 일이맛게 작만하고
 횡실이 유순하여 언어동정 존용하고
 문박글 나가지말라
 형님일신 업셔지며 뉘을밋고 스오릿가
 장화의 거동보소 만단으로 기유하고
 무름씨고 발버신체 큰못초조 다라날제
 못가이 다다르니 흥련도 갖치가서
 슈식논 흥날갓고 잔비 슬피운다
 형데서로 붓돌고셔 양천통곡 흥논말이
 천지후토 지신들아 빅정절 쥬근후의
 누명이느 벗겨쥬소
 도라가신 우리모친 유성은 현슈하느
 원통이 죽은여식 불척지설 히욱하오
 슬피통곡 궁그다가 신을버셔 쏙이노고
 치마쓰고 싸질적의 흥련도 갖치 들어가려고
 초목하다 명천이 감동하스
 그물이 갈느지며 어더한 선여들이
 이렵편쥬 자바타고 덩령바다 울여노코
 전후스연 물른후의 귀신이 감동하스
 경판의 현몽한이 위님이다
 경하여 불시로 못슬간이
 가연한 쳐조돌이 슈상의 안져거날
 교군의 모셔도 여시종을 무른후의
 계모을 잡으드려 슈리를 다한후의
 시옥석을 구별하여 효여로 천명하여

나라기지 알으시고 충열을 닮타니이
 그안이 총목한가 효성도 장할시고
 부모을 섬긴적의 현풍쌍 객슈지느
 형시가 철빈한이 봉양할길 전혀업다
 일즉이 정하여 동서괴걸 붓그럽고
 집안이 가는하여 허빅울슈 전혀업다
 품을파라 초성할제 이웃집 담스니
 와서맛고 낙환부모 귀촌허물 돌디업다
 아달쌀리 등봉잇는 야식품속 고약허디
 심전의 불효타가 죽음이 다다르면
 위인이시이 마음뇌여 통곡하고
 단지한들 그것지 효성될가
 천심이 안이며은 슬씩가 업논이라
 금목도 오형이라 금목슈화 토성리라
 니의몸은 드러신이 청용과씩 호와쥬작
 과현무로 청허논이 기운이 발동허면
 닷셔가지 정기가면 생의빗치 낙시리
 영화와는 집안의 쓴치디 안이할거시오
 데알라 구설은 춘설 사라지고
 복과덕은 화운갓치 잇논이라
 금목슈화 허리라
 금은 셔방이요 목은 동방이요
 슈는 북방이요 화는 남방정기 낫트로 헛터지니
 낙라이 엇지 무사 허리요
 일노셔 근심 만으니란 금목슈토 중리라
 집을 이별하고 탄식허다가 다시 도라왔도다
 허왈 금목이 일노셔 부모쳐조를 만늬이라
 회안금년 갈다길 스의익이 스니허며
 담썰고 소먹기되 효성마음 변치안코
 속밥을 바다들고 지성으로 보양한이
 남들이 이르기을 당세의 즈제너이
 시절이 흥년이라 오곡이 지히지고
 품팔길 업논지라 그력저력 허동허여
 봄날이 당허오니 장장춘이 허건날의
 부모싱각 간절허니 당식어예 흑마담고
 헌집식이 헌의복의 형용이 남누허다
 이받저뵈 단이며셔 물르고 만도나물
 이리저니 구허다가 호미긋히 들인소리

씨소리 분명하다 스방을 날이파고
자식이 슬퍼보니 은단지 무더거날
봉한거 열고보니 효수한양 히아리니
황금이 천양이라 하늘림 주신 보빅한이 장할손야
어서가서 파라다가 부모기갈 면히볼싸
부조집 초조가서 빅서 단말을 바다지고
영치를 넘어올지
날이장차 저물거널 부지런이 오난기리
숫박의 디적놈이 카를들고 이른마리
목숨을 익기거던 돈을주고 가라한니
곽순제 심각하되 돈을주고 치라다가
직물은 부운갓고 목숨은 귀중커늘
중기를 알슈업셔 돈을주고
부딕 조심하라 만일익을 만뇌면
고싱할거스리 쏘경신년을 만뇌면
빅스디길 허리라 금목화토 허리라
물의고기가 슈풀의 슈머시미 낙슈로락라오니
죽어쏘 다히왈 스싱을 조타허느
흘기불을 만뇌시리 엇지 평안허리요
고기가 물의들고 저허느 물을엇지
늦하고 몸이건천 익잇스니
일노셔 몸이부란 허리라
금슈화토생리라
몽봄빗치 영농허여 봉접이닷 토와츄츄
도라히왈 금토슈허니
범코져 허되 무리이셔도 감히범치 못히쏘다
닉마음은 평안하고 남이 침노치 안이허며
복녹이 만으나 목슈화토허리라
화분의 곱흘 속과던이
몹실 바람의 열미 썩러젓도다
회완 낭기물을 만뇌스니 조타허드니
흘기불 이타시리 흘과낭기 온천허리요
일노지중 익지앙도 잇시니 조심하라
금화토허리라
청천의 발은달이 구름이 드여시리
발라지 못히 돌으온이
빅슈풍진 늘근부모 조석을 조조곰고
긴긴히의 누어신이 하늘이 암암허다

괘슈데 효성보소 허날이 무심할가
논딤업논 범의소리 울밭게 돌이거날
의혹허야 느셔보니 무어슬 던지거날
슬퍼본이 음식이라 반가이 가져다
부모전의 봉친한이 기갈을 면한지라
잇튼날 평명시의 남든이 이르기을
건뇌산 췌질목의 논딤업논 썩은스람
슈삼일 잇다거날 고이허여 가서보니
어지지역 만년도적 호환으로 죽어거날
그것틀 슬퍼본이 킷미닷말 노려거날
불명이 심각건천 허날이 췌신거슬
님의로 탈치허니 실잉이 감동허스
범으로서 죽인후의 음식을 보닌신이
살은니가 가져가되 죽은너가 불상허다
오죽히 비가곱허 불의스를 횡할소양
집으로 도라와셔 은을파우 치부한이
만고 드문이니 이밭게 쏘잇는가
허날이 귀히보고 실녕이 도라보스
효조의 봉친허물 도적이 탈리한이
김싱이지 휘허야 도적을 좁은후의
도다허왈 금화논은 죽으스홀 기부점이
일노셔 니마음이 평안치 못허다
금목슈성리라
낭기 엄동을 지니고
삼월 춘풍의 쏘치만발 허엿쏘다
허왈 금옥슈한이 쏘도피고 열미도 미쳤도다
귀한스람은 귀한리별 하엿싸가 다시 만닐거시요
쏘영화을 보리라
금목화허괴라
봉황이 낭을 붓드려더니 낭기 불타미 봉황느라
도다허왈 금은봉황을 이울진딘
낭기불을 만뇌스리 엿지온전 허리요
일노셔 직화도이 스리사람을 보거든
불을 조심하라 금 금목도성리라
스방의 빛는 일흠이지
동허고 죽어든 낭기봄을 만뇌도다
허왈금이 목을 만뇌고 목이 홀을 만뇌스니
그냥 기어는 가지승지 안이허리요

조손이 흥성하고 직물은 스스로 닳치니라
금슈화토하괴라
범이 함정의 드러스니 다시 늑가지 못히도다
히왈금은 빅호금이 익범어라
슈화상국한이 슈일노셔 슈불헝하고
조손의 히이슬거시니
부덕 조심으로 산천의 기도하라
금슈토상괴라
천하 티평하고 만민 격약가을 부르더라
추천의 촛도다 히왈금
효조를 늦타니니 장하고 중할시고
남의조식 되는스람 아들딸이 외이스라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귀신도 신명하랴 못될이리 업논고로
효성니 이틀진디 헝실중의 웃듬이라
무지한 으히들은 이른줄 몰느보고
업논직물 욕심니니 천심이 불효하면
욕심으로 부조될가 효성만 극진하며
업논직물 절노잇고 못논임물이 빗치논니
그안이 조홀소야 일너 안이듯고
가라쳐도 안이듯고 그안이 슬플소야
하날쌍 칭긴후의 부모계 쏘잇는가
부모을 효성하고 형데을 우의하면
남드리 조키보고 헝실이 불헝하면
빅스가 히가잇고 사람마다 천키본이
니마음의 잇논이리 놓고머지 안이거날
부모의 효성하기 상중하가 업논이라
공부조의 무인중의 맞조건이라
하논스람 식상의 늑신후의 효성이
지이라 숨천지조 그가운디 옥예가 손통하시고
손춘절 남봉과 증앙의 조본이라
완일경신 무기년을 지여선 목이편하고
남북사람이 도으거시요 부귀하리라 목슈화하괴라
일흠이 날으의다 아라 벼살이 놉푸드니
노인의 춤소을 만히도다
낭기 봄벗티 국히 승히시느
부리타미 연가는 오르고 지는 헛치니
한번 헛터지면 모으기 어렵도다

불을 조심하라 목슈토 둥리라고
목이 엄동을 당하야 쏘치피지 못하엿스니
봄이오기만 기다리도다
히왈 낭기 삼월춘 풍비만니 쏘치피고
열미도 미저달거시라
일여무로 남조되면 벼살하고 영화보리라 목화토히리라
사람이네 너가지을 경영히도 하느도 만지못히
쏘다히왈 농기불을 만스스니 즐기엇지 온전하리요
일노셔 친척하을 지우미
우리 힘쓰느디는거시 업스니 가신을 위로하라
슈화하리라
길은가드기 하느지고 사람을 보지못하도다
히왈 흘과 불이 물을 만네시니 엇지당하리요
이려무로 가중의놀 다투일도 보면
예망도 잇고 구설도 드을거신이
조심하라 금목썰리라
화분의 숨겨 두숫니 피다 열미 미저도다
히왈 쏘치만내 고목이 금을 만내스니
만일 갑오년만 지내면 영화부지라
닷칠거시라 금슈중리라
금이 슈을 만스스니 님거연을 만내면
영화를 볼거시요 부귀하리라
금슈중리라 금이 슈을 만스스리
기연 적히나이
다다르면 더위를 걱정하고
부모을 위로하여 청풍을 빌어닉고
츨절이 당도하며 조석문안 근심하고
엄동을 당하오며 침소로 드러가서
침고덤기 무른후이 잠인들 편할소야
일평생 하느이리 지극한 효성이라
어려셔 모친일코 부친님 섬기더니
부친이 직취하여 후실을 두어더니
계모가 불양하여 이렷타 시출천효을
평상의 미워하여 음식을 쥬실씩면
흉악한 악한음식 거린갓치 뒤접하되
일분도 시기억고 모친이 닥고
감스이 달기먹고 톱산갓치 구든마음
헛말인든 변할소야

계모소한 아들노화 옥갓치 기로셔
금의체단 의복하고 평쥬무명 덩다하고
일신의 비단이요
음식을 불족시면 무어시 부족하리요
순우탕문 문쥬공천후을 초지하시고 되이신이
이도타한들 이갓치 호스할싸
이갓치 몸슬모친 일분도 시기업싸
지성으로 섬기더니 듯받계 붓친님이
춘섭을 하이 슈금화중 다라금을 만느스니
벗는 보화로 다히왈금이전 빛느스니
일국인을 만느야
이일노여 무스하여라 묵슈
생니라 낭기 엄동설한을 얼
숨월 춘풍의 솟치피고 만발
도다
비맘니스니
불
아지마라

[현대역]

낙수가

은갈꽃아 요내공은 왈프로어늘 죽시도 나와서
계모 구박하여 문외출송1 하시거늘
민자건2이 복지3하여 지성으로 비는 말이
계모가 나가시면 어린 동생 어찌하며
부친은 감지공을 뉘 능히 하오리까
순사에 효성인들 십분이나 되오리까
지성으로 애걸하며 부친을 만류하여
또한 계모 애걸하되 어머님 가시면
소자 또한 죽습니다 그 부친이 회심하여
병만 부니 들은 것 보고만 못하도다
남의 자식 되었다가 남자는 효자되고
여자는 효녀되지 효자효녀 못될진정
부모의 일생전에 힘대로 섬기다가
죽은 후에 헛이쁘니 불어생전4 일배주라
생전의 착하게 섬겨 부모공덕 갚았으니
옛날에 맹종5이는 어려서 모친 잃고
계모를 섬길 적에 효성진정 착한 마음
지성으로 섬기다가 그 모친이 병이 드니
백약이 무효하고 구미6도 변한지라
녹용인삼 좋은 물건 쓸데가 전혀 없고
화타7와 편작8이도 고칠 수가 없는지라
때마침 엄동이라 만산의 병이 들어
푸른빛 전혀 없고 만산에 덮인 눈이
용납지 못한 중에 그 모친이 청한 말씀
죽순나물 청하거늘 맹종의 효성보소
흔연히9 대답하고 물러나와 살펴보니
황강을 가자하니 길이 장차 멀어있고
위수로 가려하니 얼음이 첩첩하고
기웁으로 가려하니 녹죽은 의외로다
한곳을 다다르니 불척한들 개라울 아니할까
그날부터 더욱 조심 이전보다 배된 조심
그의말 인변들 변하리요
그 계모 그날부터 형생개도 하온후에

친자로 생각하고 천금같이 사랑하면
차모위대 효로다
몹쓸놈이 마음돌려 어진 사람 되게 하고
이복형제 분별없이 일생등분 없이말네
예서인되니 자고로 있는 효자
아무리 많다한들 지극한 효성으로
사람을 고쳐내니 계모 몹쓸 마음말고
진심갈역10 하여서라
공부자11의 제자 중에 칭찬하여 하신 말씀
효제라 민자건이 오늘까지 비쳤구나
노래자12 손효성한데 평생을 하루같이
멀리 가지 아니하고 가는 곳이 성문13이라
나이 칠십이 되었으되
부모 앞에 늙은 모양 행어나 별세할까
의심이 총총하고 어린모양 노느라고
바중웃실 이적서른 덮었는데
모친병이 시각하고 죽순을 얻자하니
할 수가 전혀없다 울밑에중 한대를
후려쳐 부여잡고 양천통곡14 하는 말이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명천님 감동하사
오늘날이 저 밭에 한 개 죽순 솟아나서
우리모친 병환중에 행어나 차도볼까
지성으로 통곡하니 옥황이 감동하사
엄동설한 눈속으로 죽순이 솟아날제
춘삼월 호시절에 등칠기 솟아난듯
박랑사15중 백사장에 역사 철퇴 솟았는듯
경각간16에 솟은 죽순
만경창파17 넓은 물에 올린옥척 솟았는듯
좋을시고 좋을시고 좋을시고
반가이 가져다가 일신봉양 하온후에
골수에 깊이 든 병 홀연히 쾌차하니
효성이 아닐진데 이렇게도 신기할까
백가지 행실중에 효성밖에 또 있는가
경상도 성주땅에 배좌수라 하는 사람
아들은 본래없고 딸둘을 두었으되
장화홍련 두딸이라 별당에 열어두고
부부서로 사랑하여 여공제질 가르칠제
넉넉한 그 재주로 성경현전 좋은 경사18

무불통지19 하는지라
계초명20의 관수21하고 부모침소 들어가서
츄고덥기 물은 후에 소사채갱 여사수유
일동일정22 조심하네 지성으로 섬겼으니
제 몸에 입고 머리에 꽃을 껌고
뜰에서 춤을 추니 장하다 이 말이여
어린 아이같이 하고 부모앞에 젊게 하고
마음이사 편케할까 지성으로 지내는 마음
천상에 가는 해를 길게 노을 있네만
수산에 올라가서 가는 세월 매어두고
오는 백발 금하더니
효성이 지극하면 부모가 오래 살고
하늘 땅 다시 일어 쉬할손 효성이라
무엇이 부족하여 욕심을 자아내면
세상을 버리나니 배워도 못할 바라
천정이 아닐진대 임의로 효성밝아
천지가 심판할 때 하늘은 아비되고
땅은 어미되어 풍산생설 재물찾아
우순풍조23 하사자니 땅에 있는 초목들이
봄으로 꽃이 피고 여름에 서늘하여
추절단풍 동백선이 아니 이상한가
이런고로 그 사이에 벼금주수 총어중의
유인24이 최귀25하니 오륜26이 있음이라
부자유친 군신유의 심히 무심하여
모친이 죽은 후에 그 아비 재취하여
후실을 두었더니 그 계모 불량하여
이렇듯이 지성효를 만평생에 미워하며
옥돌매물 구해내어 음식지어 먹인 후에
쥐를 벗겨 아이같이 형용을 만들어서
장화일신 병든 후에 치마밑에 넣어두고
음행으로 잡아내어
빙설같은 출천효여 살아날 길 전혀 없다
그 아비 몰라보고 후처말을 옳게 듣고
죽일 계획 생각하니 이 아니 가련한가
장화가 할일없네 동생 흥련 불러다가
손목잡고 부탁하되 불쌍타 흥련이야
가련타 내동생아 우리 둘이 서로 믿고
일생전을 의지하여 부친님 섬기려고

진심갈역 의논하여 함께 자고 함께 있어
둘이 서로 의지타가 귀신이 무심하고
주물이 시기하네 몹시다 우리 계모
무슨 원수 맺혔기로 불쌍한 우리형제
아무죄도 없건마는 음행으로 모함하여
누명으로 죽이려고
이내일신 죽은 후에 불량한 계모 마음
너도 필경 이를터니 애닦을사 내동생아
부친도 가련하나 네 일을 생각하니
구천27에 돌아간들 눈을 감고 돌아가라
아무리 사자한들 양반의 자식되어
음행누명 벗어날꼬 부디부디 생각말고
부친님을 효성하여 이내 소원 갚아다오
두 형제 통곡할제 일월조차 무광하다
통곡하여 이별하고 시문28밖에 내다서
어디로 가시려오 나도 함께 가사이다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하자하니
소귀새 인생이라 부모효도 지성하며
청천이 높다해도 분명 음덕있어
음덕이 유유하여 유자유손 대대마다
부귀영화 국하여 고관대작 뜻과 같이
식록의 딸 우느니라 효자충신 행실중의
감동하기 쉬운 일은 효성밖에 또 있는가
쉽게 듣고 못할 행실 부모효양 분명하다
이런고로 밝은 임금 충신을 구하라며
효자문을 찾나니라 옛글에 하시기를
주앙의 사양이라
가문에서 현처는 이를 두고 이름이라
모부모고 아니면은 우리몸 어이 나리
불경에도 중하거니 와육도에 효행록이
인생에게 으뜸이라 너 부귀를 욕심말고
쉬운 효심 자아내어 후복을 구하여라
여자몸 되거들랑 여공제질 배워낼제
내외가 분명하여 그런 국가 깊이 있어
부모음식 갖출 때며 일에 맞게 장만하고
행실이 유순하여 언어동정 조용하고
문밖을 나가지 말라
형님일신 없어지며 뉘를 믿고 사오리까

장화의 거동보소 만단으로 개유29하고
 무릅쓰고 발벗은 채 큰못찾아 달아날제
 못가에 다다르니 흥련도 같이 가서
 수세는 하늘같고 잔나비 슬피운다
 형제 서로 붙들고서 양천통곡 하는 말이
 천지후토 지신들아 백정절 죽은 후에
 누명30이나 벗겨주소
 돌아가신 우리모친 유성은 현수하나
 원통히 죽은 여식 부허지설31 해원32하오
 슬피 통곡 궁하다가 신을 벗어 독에 놓고
 치마쓰고 빠질 적에 흥련도 같이 들어가려고
 참혹하다 명천이 감동하사
 그 물이 갈라지며 어떠한 선녀들이
 일엽편주33 잡아타고 울렁바다 올려놓고
 전후사연엔 물은 후에 귀신이 감동하사
 경판에 현몽하니 원님이다
 경하여 불시로 못을 가니
 가련한 처자 둘이 수상히 앉았거늘
 교군34에 모셔도 여시종을 물은 후에
 계모를 잡아들여 수리을 다한 후에
 옥석을 구별하여 효녀로 천명하여
 나라까지 알으시고 총렬을 나타내니
 그 아니 참혹한가 효성도 장할시고
 부모를 섬길 적에 현풍땅 곱수지는
 형세가 청빈하니 봉양할길 전혀 없다
 일찍이 정하여 동서구걸 부끄럽고
 집안이 가난하여 하배울 수 전혀 없다
 품을 팔아 초성할제 이웃집 담에 사니
 와서받고 내환부모 귀찮은 물 둘데없다
 아들딸이 등봉있나 야세풍속 고약한데
 생전에 불효타가 죽음에 다다르면
 위인이시 마음내어 통곡하고
 단지35한들 그 어찌 효성될까
 천심이 아니면은 쓸데가 없느니라
 금목토 오행이라 금목수화 토성이라
 나의 몸은 드렸으니 청룡과 백호와 주작과
 현무로 청하노니 기운이 발동하면
 다섯가지 정기가면 생의 빛이 나시리

영화와는 집안의 끝가지 아니할 것이요
제알라 구설은 춘설 사라지고
복과 덕은 화운같이 있느니라
금목수화 하리라
금은 서방이요 목은 동방이요
수는 북방이요 화는 남방정기 낮으로 흠어지니라
이 어찌 무사하리오
이로써 근심 많으니 금목수토 중이라
집을 이별하고 탄식하다가 다시 돌아왔도다
해왈 금목이 일로써 부모처자를 만나니라
회안금년 길다길사 의액이 스니하며
담뚝고 소먹기되 효성마음 변치 않고
숙밥을 받아들고 지성으로 봉양하니
남들이 이르기를 당세에 드제너이
시절이 흉년이라 오곡이 더해지고
품팔길 없는지라 그럭저럭 해동하여
봄날이 당해오니 장장춘일 하는 날에
부모생각 간절하니 당색어에 흑마답고
헌집식이 현의복에 형용이 남루하다
이발저발 다니면서 물으고 만도나물
이리저리 구하다가 호미끝에 들인 소리
쇠소리 분명하다 사방을 널리 파고
자세히 살펴보니 은단지 묻었거늘
봉한거 열고보니 효수한양 해아리니
황금이 천냥이라 하늘님 주신 보배하니 장할소냐
어서가서 팔아다가 부모기갈36 면해볼까
부잣집 찾아가서 백서 단말을 받아지고
영채를 넘어올제
날이 장차 저물거늘 부지런히 오는 길에
뜻밖에 도적놈이 칼을 들고 이른 말이
목숨을 아끼거든 돈을 주고 가라하니
곽순제 생각하되 돈을 주고 치려다가
재물은 부운같고 목숨은 귀중커늘
중개를 알 수 없어 돈을 주고
부디 조심하라 만일 액을 만나면
고생할 것이리 또 경신년을 만나면
백사대길37 하리라 금목화토 하리라
물의 고기가 수풀에 숨었으며 낚시로 낚아오니

죽었도다 희왈 사생을 즐다하나
흘기불을 만났으니 어찌 평안하리요
고기가 물에 들고 저 하나 물을
어찌 못하고 몸이 건천에 있으니
일로써 몸이 불안하리라
금수화토생이라
몽뽕빛이 영롱하여 봉접38이 다투어 춤추더라
희왈 금토수하니
범코저하되 물이 있어도 감히 범치 못했도다
내마음은 평안하고 남이 침노치 아니하며
복록이 많으나 목수화토 하리라
화분에 꽃을 심었더니
몹쓸 바람이 열매를 떨어뜨렸도다
희왈 양기물을 만났으니 즐다하더니
흘기불 애타시리 흘과양기 온천하리요
일로지중에 재앙도 있으니 조심하라
금화토 하리라
청천에 밝은 달이 구름에 들었으니
바라지 못해 돌아오니
백수풍진39 늙은 부모 조석을 자주 굶고
긴긴 해에 누웠으니 하늘이 암암하다40
곽수제 효성보소 하늘이 무심할까
난데없는 범의 소리 울밖에 들리거늘
의혹하여 나서보니 무엇을 던지거늘
살펴보니 음식이라 반가이 가져다가
부모전에 봉친41하니 기갈을 면한지라
이튿날 평명시에 남더니 이르기를
건너산 제질목에 난데없이 죽은 사람
수삼일 있다거늘 괴이하여 가서보니
어제 저녁 만난 도적 호환으로 죽었거늘
그 곁을 살펴보니 백미닷말 놓여거늘
분명히 생각컨대 하늘이 주신 것을
임의로 탈취하니 신령이 감동하사
범으로서 죽인 후에 음식을 보내시니
쌀은 내가 가져가되 죽은 네가 불쌍하다
오죽히 배가 고파 불의사를 행할소냐
집으로 돌아와서 은을 팔아 치부하니
만고에 드무니 이밖에 또 있는가

하늘이 귀히 보고 신령이 돌아보사
효자의 봉친함을 도적이 달리하니
짐승이 지휘하여 도적을 잡은 후에
모두 희왈 금화는 죽으나 흠기부점
이 일로써 내마음이 평안치 못하다
금목수성이라
양기 엄동을 지내고
삼월 춘풍의 꽃이 만발 하였도다
희왈 금목수하니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도다
귀한 사람은 귀한 이별 하였다가 다시 만날 것이오
또 영화를 보리라 금목화 하리라
봉황이 낭을 붙들이더니 낭기 불타며 봉황 날았도다
희왈 금은봉황을 이을진대
양기불을 만났으니 어찌 온전 하리오
일로써 재화도 있으리 사람을 보거든
불을 조심하라 금목토성이라
사방에 빛난 이름이 진동하고
죽었던 낭기봉을 만났도다
희왈 금이 목을 만나고 목이 흠을 만났으니
그 낭기는 가지승지 아니하리오
자손이 흥성하고 재물은 스스로 닥치니라
금수화토 하리라
범이 함정에 들었으니 다시 나가지 못했도다
희왈 금은 백호금이 매범이라
수화상극42하니 수일로써 수불행하고
자손의 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으로 산천에 기도하라
금수토 상이라
천하태평하고 만민이 격양가43를 부르더라
추천44에 찻도다 희왈
금효자를 나타내니 장하고 장할시고
남의 자식되는 사람 아들딸이 왜 있으랴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귀신도 신명하라 못될 일이 없는고로
효성이 이를진대 행실중에 으뜸이라
무지한 아이들은 이런 줄 몰라보고
없는 재물 욕심내니 천심이 불효하면
욕심으로 부자될까 효성만 극진하며

없는 재물 절로 있고 못난 인물이 비치나니
그 아니 좋을소냐 일러 아니듣고
가르쳐도 아니듣고 그 아니 슬플소냐
하늘땅 생긴후에 부모께 또 있는가
부모를 효성하 형제를 우애하면
남들이 좋게보고 행실이 불행하면
백사가 해가 있고 사람마다 천하게 보니
내마음에 있는 일이 높고 멀지 아니거늘
부모의 효성하기 상증하가 없나니라
공부자의 무인 중에 민자건이라 하는 사람
세상에 나신 후에 효성이 제일이라
삼천제자 그 가운데 육예45가 산통하시고
산춘절 남봉과 중앙의 제본이라
완일경신 무기년을 지어 선목이 편하고
남북사람이 도울 것이요 부귀하리라 목수화 하리라
이름이 날리어다 아이 벼슬이 높으더니
노인의 참소를 만났도다
낭기 봄별에 극히 승했으나
불에 타 연기는 오르고 재는 흩어지니
한번 흩어지면 모으기 어렵도다
불을 조심하라 목수도 중이리
그 목이 엄동을 당하여 꽃이 피지 못하였으니
봄이 오기만 기다리도다
희왈 낭기 삼월춘풍 비만나 꽃이 피고
열매도 맺어 달렸으랴
일념으로 남자되면 벼슬하고 영화보리라 목화토 하리라
사람이 내너까지를 경영해도 하나도 만나지 못했도다
희왈 낭기불을 만났으니 흥기 어찌 온전하리요
일로써 친척해를 지우매
아무리 힘쓰는 것이 없으니 가친46을 위로하라
수화하리라
길은 가다가 해는 지고 사람을 보지 못했도다
희왈 흥과 불이 물을 만났으니 어찌 당하리요
이러므로 가중에 놀라는 일도 보면
예망도 있고 구설도 들을 것이니
조심하라 금목중이라
화분의 숨겨 두 꽃이 피다 열매 맺었도다
희왈 꽃이 많네 고목이 금을 만났으니

만일 갑오년만 지내면 영화부지라
 닥칠것이라 금수중이라
 금이 수를 만났으니 임거연을 만나면
 영화를 볼 것이요 부귀하리라
 금수중이라 금이 수를 만났으리
 기연 적히나아
 다다르면 더위를 걱정하고
 부모를 위로하여 청풍을 빌어내고
 추절47이 당도하며 조석문안48 근심하고
 엄동을 당하오며 침소로 들어가서
 춤고덥기 물은 후에 잠인들 편할소냐
 일평생 하는 일이 지극한 효성이라
 어려서 모친앓고 부친님 섬기더니
 부친이 재취하여 후실을 두었더니
 계모가 불량하여 이렇듯이 출천효를
 평생에 미워하여 음식을 주실 때면
 흉악하고 악한 음식 걸인같이 대접하되
 일본도 시기익고 모친이 닭고
 감사히 달게 먹고 태산같이 굳은 마음
 헛말인들 변할소냐
 계모 또한 아들낳아 옥같이 기르셔
 금의체단 의복하고 평주무명 덩다하고
 일신의 비단이요
 음식을 불작시면 무엇이 부족히리
 요순우탕49 문무주공50 천하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좋다한들 이같이 호사할까
 이같이 몹쓸 모친 일본도 시기없다
 지성으로 섬기더니 뜻밖에 부친님이
 춘섭을 하니 수금화중 다라금[]을 만났으니
 벗은 보화로다
 희왈 금이전[] 빛났으니
 일국인을 만나야 []
 이일 놀여 무사하여라 목수생이라
 낭기 엄동설한을 얼[]
 삼월 춘풍에 꽃이 피고 만발[]도다
 []
 비[]맘 냈으[]
 불[]

낙수가

알지마라

[각주]

- 1) 문외출송(門外出送) : 죄지은 사람의 관작(官爵)을 빼앗고 한양(漢陽) 밖으로 추방하던 형벌.
- 2) 민자건(閔子騫) :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사람으로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으로, 효행이 뛰어났으며 공자의 제자가 되었음.
- 3) 복지(伏地) : 땅에 엎드림.
- 4) 불여생전(不如生前) : 살아 생전.
- 5) 맹종(孟宗) :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으로 효자로 이름이 높았으며, 겨울에 그의 어머니가 즐기는 죽순이 없음을 슬퍼하자 홀연히 눈 속에서 죽순이 나왔다고 함.
- 6) 구미(口味) : 입맛.
- 7) 화타(華佗) : 중국 후한(後漢) 말 위나라의 명의(名醫)로 이름난 인물. 약제의 조제나 침질, 뜸질에 능하고 외과 수술에 뛰어났으며, 일종의 체조에 의한 양생 요법인 '오금희(五禽戲)'를 창안하였음.
- 8) 편작(扁鵲) : 중국 전국시대의 명의로 유명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하였다. 장상군(長桑君)으로부터 의술을 배워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함.
- 9) 흥연(欣然)히 :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은.
- 10) 진심갈력(盡心竭力) : 마음과 힘을 있는대로 다함.
- 11) 공부자(孔夫子) : 공자(孔子)를 높여 부르는 말.
- 12) 노래자(老萊子) :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학자로 70세에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여 늙은 부모를 위안하였다고 함.
- 13) 성문(省問) : 부모의 안부를 물음.
- 14) 양천통곡(仰天痛哭) : 하늘을 우러러 몹시 울.
- 15) 박랑사(博浪沙) : 중국 진(秦)나라 무양성의 남쪽에 있는 지명으로, 장량(張良)이 역사(力士)들로 하여금 철퇴로 진나라 시황제를 저격하게 한 곳으로 유명함.
- 16) 경각간(頃刻間) : 눈 깜빡할 사이.
- 17)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 이랑이나 되는 푸른 물결.
- 18) 경사(經史) : 경전(經典)과 역사(歷史).
- 19) 무불통지(無不通知) : 무슨 일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
- 20) 계초명(鷄初鳴) : 닭이 처음 우는 때. 곧 새벽.
- 21) 관수(盥漱) : 세수와 양치질을 함.
- 22) 일동일정(一動一靜) : 하나하나의 동정. 모든 동작.
- 23) 우순풍조(雨順風調) : 비가 때맞추어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분다는 뜻으로, 농사에 알맞게 기후가 순조로움을 이르는 말.
- 24) 유인(唯人) : 오직 사람만이.
- 25) 최귀(最貴) : 가장 귀함.
- 26) 오륜(五輪) :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이룸.
- 27) 구천(九泉) : 저승.
- 28) 시문(柴門) : 사립문.
- 29) 개유(開諭) :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름.

- 30) 누명(陋名) :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 31) 부허지설(浮虛之說) : 떠돌아다니는 허황한 말.
- 32) 해원(解冤) : 원통한 일을 풀어줌.
- 33) 일엽편주(一葉片舟) : 작은 배.
- 34) 교군(輜軍) : 가마꾼. 가마를 메는 일.
- 35) 단지(斷指) : 손가락을 자름. 가족의 병이 위중할 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피를 내어 먹이려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거나 깨물던 일.
- 36) 기갈(飢渴) : 배고픔.
- 37) 백사대길(百事大吉) : 온갖 일이 크게 좋음.
- 38) 봉접(蜂蝶) : 벌과 나비.
- 39) 백수풍진(白首風塵) : 늘그막에 세상의 어지러운 일이나 온갖 곤란을 겪게 됨을 이르는 말.
- 40) 암암하다 : 어두컴컴하다.
- 41) 봉친(奉親) : 아버이를 받들어 모심.
- 42) 상극(相戾) : 둘 사이에 마음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항상 충돌함.
- 43)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중국의 요임금 때 태평한 생활을 즐거워하여 불렀다고 함.
- 44) 추천(秋天) : 가을 하늘.
- 45) 육예(六藝) :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이 름.
- 46) 가친(家親) :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 47) 추절(秋節) : 가을.
- 48) 조석문안(朝夕問安) :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여쭙.
- 49) 요순우탕(堯舜禹湯) :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중국의 네 임금.
- 50) 문무주공(文武周公) : 중국의 이상적인 나라인 주(周)나라를 세운 핵심 인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